

일주목

“東亞선승 정신사 연구 관심”

정년퇴임 동국대 사학과 조영록 교수

“선종계통 스님들이 구법을 위해 중국을 찾는 과정을 추적해 동아시아 선승들의 정신사를 새롭게 밝혀보고 싶다.”

2월말로 32년간의 강단생활을 접고 아인(野人)으로 돌아가는 동국대 사학과 조영록 교수는 정년 퇴임 후 “지금까지는 명대 주자학을 중심으로 한 지성사가 연구의 주된 관심사였다면 앞으로는 중국 불교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조선시대 불교 새로 조명돼야

정신사'를 새로운 연구 주제로 삼고 싶다”고 밝혔다.

중국 명대 사상·정치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교류사에 천착해 온 조 교수가 중국 불교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조선시대 불교를 새롭게 조명해 보기 위해서다. 조 교수는 “송대 이전까지 중국 정신사를 지탱해 오다 침체됐던 불교가 다시 부상하는 게 명나라 말기 이른바 3고승이 나타나면서부터인데, 이는 임진왜란을 전후로 한 조선불교의 중흥기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며 “명말 3고승의 사상적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불교를 중심으로 한 유교 사명대사를 중심으로 한 조선불교 역시 유불 합일로 설명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 교수는 그 동안 쓴 논문들을 <중국 근세 지성의 이념과 운동> <동아시아 국제 관계사 연구> (가제)로 묶어 3월쯤 출간할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jiny@buddhapia.com

“전북 제1의 복지관 만들터”

8월 개관 서원노인복지관 우용호 관장



부대중과 도영 스님의 노고 덕분에 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서원복지관의 개관은 유독 불교계가 약한 전라북도에서 불자들이 벌인 노력의 첫 결실이라 더욱 뜻깊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이 금산사에 주지로 부임한 이래 금산사의 사부대중들은 복지법인을 설립하고 노인일거리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복지봉사를 크게 일으키고자 노력했다. 우 관장도 노

어르신 경륜 배우는 자세로 봉사

“전라북도 내에서 가장 큰 복지관을 맡게 돼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금산사 사부대중이 지혜를 모아 복지관이 여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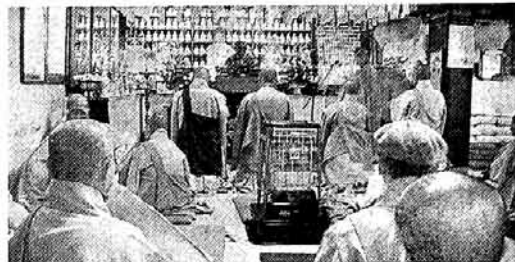
8월 개관과 함께 전주 서원노인복지관장으로 취임한 우용호(44) 관장. 우관장은 개관하자마자 밀려오는 노인들에게 행여 불편한 점을 없애기 일임이 행기고 있다.

“전주시가 서원복지관의 경영을 금산사에 맡긴 것은 금산사 사

인일거리 사업장의 팀장으로 있을 때 스님과 맺은 인연으로 서원복지관 관장의 중책을 맡게 됐다.

“경험이 많은 어르신들의 경륜을 배운다는 자세로 봉사를 하겠다”는 우관장은 “서원종합복지관을 명실공히 전북 제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불자들에게 자원봉사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해, 자비종교 불교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전주 시민들에게 심어 나갈 계획이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대승종 수계산림법회·건당식

‘대한불교 대승종은 8일 서울 신당동 흥도사에서 수계산림 법회 및 건당식을 가졌다. 종정 도암 스님을 비롯해 일오 총무원장, 서봉 원로원장, 법타 교육원장, 기현 포교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 10명이 비구·비구니계, 사미·사미니계를 받고 종정 도암스님과 총무원장 일오스님 앞으로 건당했다.



한마음선원 새해맞이 촛불제

실을 맞아 ‘새해맞이 촛불제’가 한마음선원 본원을 비롯 국내외 26개 지원에서 열렸다. 국내 지원은 14~16일 촛불제 행사를 가졌으며, 해외 지원 또한 실을 전후로 촛불제 행사를 가졌다. 특히 12~14일 안양 본원에서 열린 촛불제(사진)에는 4천여 불자들이 참석해, 마음의 불을 밝혀 불자로서의 참삶을 살아갈 것을 서원했다.



평불협 창립 10주년 기념식
법타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의 회장은 22일 오후 6시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평불협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일 심포지엄 참가 출국
전관 불교인권위 공동대표는 ‘동아시아 냉전과 국제테러리즘’ 심포지엄에 참가하기 위해 22일 일본으로 출국한다.



광주불교문화대 졸업식
영조 광주불교문화대학장은 28일 오전 10시 광주불교문화대학 대강의실에서 졸업식을 거행한다.



교불련 정기총회·이사회
연기영 교수불자연합회장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만해교육관에서 교불련 정기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한다



‘선과 선어록’ 16주간 강의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는 3월 2일부터 16주 동안 연세대 사회교육원에서 열리는 ‘선과 선어록’ 강의를 한다.



파드마 슈리상 수상
김양식 한국인도문화연구원장은 최근 한·인도 문화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파드마 슈리상’ 수상자에 선정됐다.



금융단불교련 4대 회장
이탁수 한빛은행 강남영업본부 차장은 5일 금융단불교련 운영위에서 전국금융단불교련 제4대 회장에 선출됐다.



생명나눔회 치료비 전달
생명나눔 실천회(이사장 법장)는 6일 군법사 출신으로 만성신부전증과 간암으로 투병 중인 박상호 법사에게 치료비 1천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법장스님은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박 법사는 군포교에 서원을 세우고 매진했다”며 쾌유를 빌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불자와 현역군법사들의 정성으로 모아졌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최대 역점

임오년을 푸는 불자 ⑦ 한국세무사불자회장 정구정 씨

“현대인들은 앞만 보고 쫓기듯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업무특성상 더욱 그러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자기정찰을 통한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불법을 전하고 전국의 사찰과 대중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실시, 사회복지시설 방문 및 봉사활동 등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불자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년 한국세무사불자회 창립위원장을 맡아 불자회 창립의 산파역할을 했고 지난해 세무사불자회장으로 선출된 정구정(47) 세무사는 올해를 불자회 제2창립의 해로 정했다. 지난 7년간 꾸준히 법회를 보고 수행 활동을 해 왔지만 보다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으로 회원들의 불심을 더욱 견고하게 이끌고 싶기 때문. 그래서 그는 올해 불자회 창립 당시의 초발심으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정 회장이 올해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은 바로 인터넷 홈페이지(www.buddhatax.com) 제작. 2월 말 정식 오픈 예정인 홈페이지에는 법회에 동참하지 못한 회원들과 조세 관련 종사자들을 위해 사이버 법문과 불교이해하기 코너가 운영될 계획이다.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불교가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초심자들을 위해 사찰예절, 기초교리, 불자로서의 기본 상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해 불교이해하기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기존 회원들을 위해서는 큰스님 육성법문, 동명상 등을 디지털로 변환해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법회 안내, 기타 공지 등을 통해 회원들의 친목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법문은 배우는 것보다 회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 회장은 홈페이지에 무료 세무상담 코너를 신설해 회원들이 가진 지식을 나누고 남의 관심이 되고 소외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생활용품 지원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자회의 창립 목적인,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사회 봉사, 회원 친목강화’를 실현한다는 것. 지난 1월에는 라면, 쌀 등 생필품을 들고 안산 대부도 동지마을을 방문해 회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매월 둘째주 금요일 봉은사에서 열리는 정기법회와 6월과 10월에 실시되는 성지순례 등 기존에 펼쳐왔던 행사들을 특성화 하는 것 또한 정 회장이 세심하게 준비하는 사업이다. 또한 홈페이지가 오픈되면 조세일보 등 세무관련 홈페이지에 불자회 홈페이지를 홍보할 계획이라는 정 회장은 올해 세운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현재 200여명인 회원을 2배로 늘린다는 각오도 세우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큰스님법문 디지털화, 무료상담코너 신설



종단협, 대북지원 물품 선적식

종단협의회는 7일 인천항에서 방한외투 2만벌5컨테이너 분량 선적식을 가졌다. 이날 선적된 방한외투 2만벌은 북한 흑한지역인 자강도 량강도 어린이들에게 전달된다. 선적식에는 천태종 관문사 주지 준광, 원효종 총무원장 무진, 일봉선교종 총무원장 동봉, 여래종 총무원장 명안 스님 등이 참석했다.



동명불원 대불장학회 장학금 전달

동명불원 대불장학회(이사장 장산)는 10일 동명불원 대웅전에서 제2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장산스님은 문헌영교 2학년 윤은란, 컴퓨터고 1학년 김진호 등 5명에게 3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산스님은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욱 노력해 사회를 위한 큰 일꾼이 되어달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Advertisement for 'Bong' (봉) featuring a large Buddha statue and text about a 3-month 5-day course. The text includes details about the course, fe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Bongseonja.